

퀀틴전시 플랜

고용에서 다시 물가로



[투자전략팀]

조재운 / Quant Strategist
jaeun.jo@daishin.com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경제지표

고용에서 다시 물가로

- 7월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로 변동성을 확대. 하지만 미국 노동 시장은 겉보기처럼 취약하지 않으며, 7월 물가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시장과 연준의 관심은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향할 것으로 판단.
- Fed Watch에 따르면 9월 50bp 금리인하 가능성은 지난 8월 5일 85.0%까지 상승. 하지만 8월 9일 51.0%까지 하락.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더라도 고용시장이 견조할 경우 9월 50bp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 연준은 경기 둔화 가능성과 노동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

견조한 미국 노동 시장

- 실업률 상승의 배경: 7월 실업률은 4.3%로 상승하며 Sahm Rule을 발동시켰지만, 이는 해고 증가보다는 노동력 참여율 증가 (특히 prime-age workers)에 기인한 측면이 큼. prime-age workers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률도 역사적 고점에 근접.
- 해고: 아직까지 해고가 급증하는 징후는 없음. 7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는 허리케인 베릴과 자동차 공장의 여름 휴가 등 계절적 요인이 다수.
- 견조한 임금: 평균 임금은 2019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성 증가 가속화는 향후 임금 상승세 지속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탄탄한 소비 여력: 낮은 실업률, 견조한 임금 상승세, 양호한 가계 재정 상황은 소비 지출 급감 가능성을 낮출 것. 또한, 주택 가격 상승과 주식 시장 호조로 가계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9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 활용을 통한 소비 여력도 확대될 가능성.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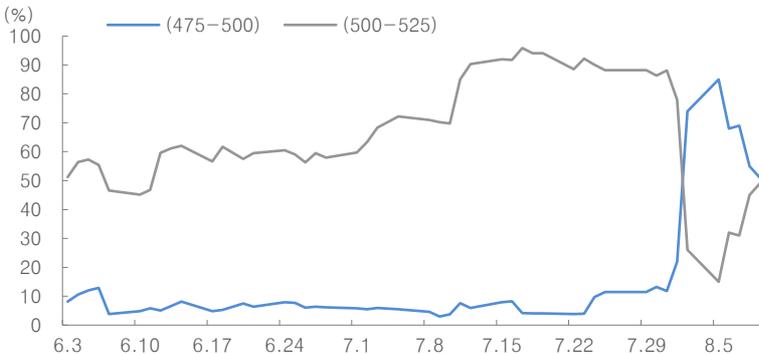
- 둔화 추세: 시장은 6월 CPI 상승세 둔화에 이어 7월에도 헤드라인, 코어 CPI 모두 0.2%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공급망 개선: ISM지수 등에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는 상품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도 안정적인 흐름.

요일	주제
월	이슈/변곡점 분석 및 전망
화	경제지표/이슈 점검
수	증시 성과 요인 분석
목	실적 컨센서스 점검
금	밸류에이션 점검, 주간 전망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장**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Fed Watch 금리 인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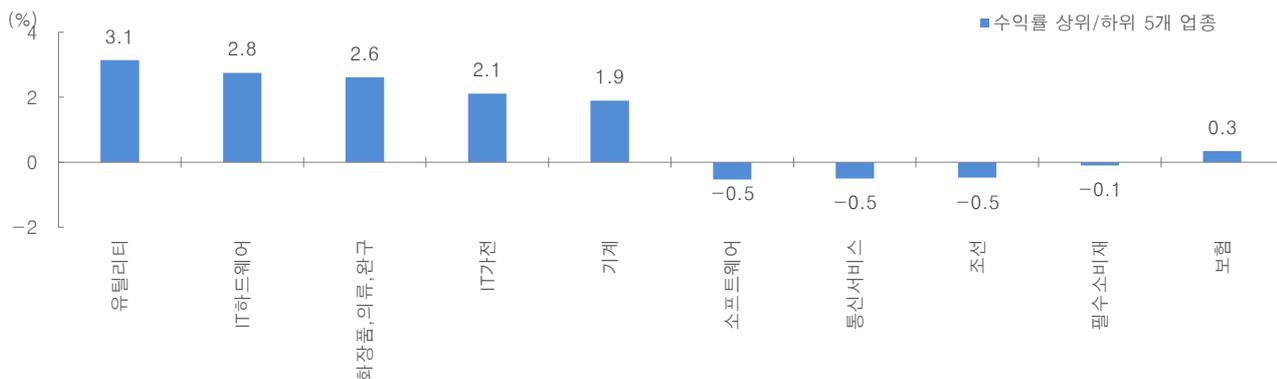


자료: CM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업종 수익률 및 특징주

- 업종별로는 유틸리티(+3.1%) 강세. 특히, 한국가스공사(+11.6%)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2분기 실적 기대감과 배당정책 확대로 강세 주도. 뒤이어, IT하드웨어(+2.8%) 강세. 그중 LG이노텍(+6.4%)이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
- 한편, 화장품, 의류, 완구(+2.6%) 내에서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코웨이(+6.4%)와 '시나모롤'과 협업 발표한 에이피알(+8.8%)이 급등
- 반면, 소프트웨어(-0.5%) 약세. 그중 NAVER(-2.1%)가 외국인, 기관 순매도로 약세. 뒤이어, 방어주 성격인 통신서비스(-0.5%) 약세

수익률 상위/하위 5개 업종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p)	동락율(%)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2,618	1.2	7.2	-8.4	-4.0	-0.1	1.0	-1.4
에너지	3,599	1.7	9.5	-0.2	-0.1	-7.9	-23.2	-13.4
화학	4,515	1.1	5.9	-19.9	-21.9	-26.6	-42.0	-33.2
비철, 목재	3,840	0.9	10.8	-9.4	-8.7	1.8	-14.8	-2.1
철강	2,237	0.7	4.2	-15.7	-18.5	-27.4	-40.1	-32.9
건설, 건축	1,247	1.9	9.6	4.3	2.1	2.8	-9.0	-0.8
기계	3,138	1.9	11.9	-14.2	-2.5	35.5	23.9	31.6
조선	3,766	-0.5	12.8	14.2	25.1	54.3	25.1	44.1
상사, 자본재	1,536	1.3	7.5	-0.6	2.3	4.4	22.6	13.8
운송	1,414	0.9	5.3	-5.0	-2.8	-7.3	-4.3	-7.2
자동차	9,208	0.7	7.7	-10.9	-5.1	-7.0	13.5	3.9
화장품, 의류	3,756	2.6	0.8	-9.6	-14.7	-3.4	-11.5	-7.3
호텔, 레저	1,632	0.9	5.4	-6.7	-13.9	-18.9	-10.6	-12.3
미디어, 교육	508	0.6	3.0	-7.6	-14.3	-14.2	-27.5	-21.3
소매(유통)	1,667	1.8	3.2	-3.8	-13.4	-20.7	-29.7	-17.5
필수소비재	5,509	-0.1	9.0	2.3	10.0	15.7	16.4	13.1
건강관리	8,780	1.3	10.8	7.0	8.7	11.4	12.4	3.8
은행	1,779	0.5	6.2	-1.4	3.3	9.8	40.5	27.1
증권	1,227	1.0	10.1	-0.9	1.8	8.7	34.9	22.3
보험	7,260	0.3	7.2	-5.3	4.2	4.5	32.1	27.1
소프트웨어	5,364	-0.5	4.9	-7.9	-12.7	-17.9	-18.0	-22.0
IT하드웨어	904	2.8	10.1	-14.4	-7.3	3.9	-10.9	-5.9
반도체	10,157	1.6	7.4	-14.4	-4.2	6.4	19.7	2.2
IT가전	1,937	2.1	4.7	-15.4	-19.3	-17.1	-40.5	-27.7
디스플레이	690	1.2	7.4	-17.8	-1.1	-8.5	-19.8	-11.4
통신서비스	300	-0.5	3.1	3.0	3.3	2.0	12.5	6.5
유틸리티	761	3.1	8.7	-0.2	6.6	8.4	13.8	16.5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이경민, 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